



동북아와 손잡고 개방으로 미래를 이끌자

## 제 15 회 중국 - 동북아박람회 장춘에서 개막

호춘화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



▲ 8월 27일, 제 15 회 중국 - 동북아박람회가 장춘에서 개막되었다. 전국정협 부주석 호춘화가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했다.

8월 27일, 제 15 회 중국 - 동북아 박람회가 장춘에서 개막되었다. 전국정협 부주석 호춘화가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했다. 호춘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 동북아박람회를 매우 중시한다. 박람회는 설립된 20년래 개방과 포용의 협력 정신을 견지하고 동북아지역의 무역투자 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미 지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급별이 가장 높은 경제무역협력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호춘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동북아 국가들은 경제 발전이 각자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발전이 가장 활력있는 지역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중앙주변사업회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고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함께 노력하여 평화, 안녕, 번영, 아름다운과 친선의 '5 대가원'(五大家园) 건설을 공동 념원으로 삼고 지역의 공동발전을 촉진하며 산업협력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녹색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인문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주변 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길림성당위 서기이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황강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하고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개막식을 사회했다. 성장협 주석 주국현이 참석하였다. 황강은 길림성 당위와 정부를 대표하여 국내외 귀빈들에게 환영을 표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

동북아박람회가 설립된 20년래 각측의 교류협력은 풍성한 성과들을 거두었고 지역 발전의 길은 갈수록 넓어졌으며 친선의 꽃은 갈수록 눈부서졌다. 길림성은 중국의 '일대일로' 북방 개방의 중요한 창구로서 지역적 우세가 두드러지고 자원원품이 풍부하며 산업기초가 튼튼하고 문화바탕이 깊으며 활력이 넘치고 유망한 광활한 천지이다. 우리는 습근평 주석과 각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실행하고 중국 - 동북아박람회 플랫폼을 잘 활용하였다.



▲ 개막식에 앞서 전국정협 부주석 호춘화는 성당위 서기 황강,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 성장협 주석 주국현 등의 안내하에 전시관을 순회하고 참가 단위 책임자와 교류했다.

하여 경제무역 왕래의 상호 이익, 산업체계의 상호 촉진, 기초시설의 상호 연결, 인문교류의 상호 학습과 상호 참조를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지역 협력시대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것이다.

몽골국 제 1 부총리 겸 경제발전부 부장 니우켈러가 서면 축하를 발표하고 몽골국 경제발전부 국무비서 이바트가 대독했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 인둥(鄭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노건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리중간, 바스프그룹

글로벌 부총재 앤스가 차례로 축하를 했다. 조선 대외경제상 윤정호, 로씨야 경제발전부 부부장 일리초프가 축하편지를 보내왔다.

개막식에는 중국 해관총서 총기사 조혁, 몽골국 국가대외협력법률상설위원회 위원장이며 의원인 다차오그트바텔, 몽골국 중앙성 성장 르투무르추멜, 로씨야 다만스탄공화국 부총리이며 다만스탄 주재 로씨야연방 전권대표인 라벨 아흐메드신, 벨라루서 고멜리 주지사 크루프코 이반, 몽골국 식품농목업및경공업부 국무비서 점브라인즈, 한중교류협회 고문 박양우, 중국 주재 그루지야 대사 바야카란 다스, 동북아지역지방정부연합회 비서장 람빙진 등이 참가했다.

개막식에 앞서 호춘화는 황강, 호옥정, 주국현 등의 안내하에 중국 - 동북아박람회 전시관을 순회하고 참가 단위 책임자와 교류했다.

길림성 및 장춘시 관련 지도자, 전국정협 관공청 관련 동지, 상무부 관련 사와 국 책임 동지, 관련 성(구, 시) 과 중요 도시 지도자, 항항특별행정구정부 대표, 중국 주재 각국 사절, 국내외 유명 상회회 책임자, 세계 500 강 기업 및 중국 500 강 기업 임원, 부분적 중앙기업 임원, 성 직속 관련 부문 및 우리 성 각 시(주) 책임자 등이 개막식에 참가했다.

/ 길림일보

G331 국도 도문 구간 9월 20일 개통 예정



최근 331 국도 변경개방관광대동로 도문 구간 개축 확장 공사가 예정된 목표를 앞당겨 완수했다. 이 공사는 9월 20일 준공 및 개통될 예정이다.

공사의 시작점은 331 국도 도문시와 룡정시 접경지대에 위치해있으며 종점은 331 국도 일광산 산문에 위치해있다. 왕복 2차선 2급 도로 기준으로 건설되며 설계시속 60키로미터/시, 로반 폭은 10미터이다.

지금까지 로반 다지기, 옹벽, 수로공사가 모두 완수되고 수문포장층 작업도 모두 마무리되었다. 아스팔트 하층은 20.5킬로미터 완수되어 2.2킬로미터가 남았다. 아스팔트 상층은 12.3킬로미터 완수되어 10.4킬로미터가 남았다. 교량공사에서는 산성소교, 백룡소교, 학서소교가 모두 완수되고 하석전소교, 기신소

교는 란간 매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터널공사 주제 구조가 모두 완수되어 현재 내부 마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공사에서는 란간 설치가 한창이며 경사면에 흙을 덮어 잔디를 심는 복화공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길림성 331 국도 변경개방관광대동로 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이 공사는 '백년부락', 두만강조선족 문박원 등 14 곳의 관광자원을 연결한다.

공사가 끝나면 교통과 관광자원의 상호 보완 및 협동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흥변부민, 향촌진흥, 문화관광 융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새로운 엔진을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 연변라지오 TV 넷



일전, 건안현 양자진 대합촌의 촌민들이 금방 수확을 끝낸 찰옥수수 밭에 가을 배추를 심고 있다. 그들은 한해 이모작 농작물 재배를 통해 수입을 늘이고 있다. / 길림농촌보

길림성방지관 8월 28일 정식 개관

길림성방지관(方志馆)이 2025년 8월 28일에 정식으로 개관하고 사회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길림성방지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16시(15시 30분 입관 중단) 개방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관중들은 유료 신분증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등록한 후 방지관에 들어가 자료를 열람할수 있다. (연락전화: 0431-81915913)

길림성방지관은 지방의 역사를 기록하고 지역 문화를 전승하는 중요

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다. 방지관은 대량의 진귀한 지방 문헌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바 풍부한 소장품을 통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길림지역 발전 변천을 전방위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방지관에는 10만권에 달하는 1만 2,000여종의 지방지, 년감 등 문헌들이 소장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정치, 경제, 문화, 민속 등 많은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바 길림 력사문화를 료해하는 중요한 창구로 되고 있다.

/ 길림성방지관

총투자액 44.5 억원!

연변민영기업투자무역상담회 26개 대상 집중 체결

26일 펼쳐진 중국연변민영기업투자무역상담회 개막식에서 26개 대상이 집중 체결되었다. 총계약액은 44억 5,000만원에 달하고 식품, 화공, 물류, 신에너지, 신소재 등 다방면에 걸쳐 연변주의 발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었다. 연변주의 발전 우세는 매우 뚜렷하다. 중국, 로씨야, 조선 3개국 국경과 동북아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여 우리 나라 동북아 개방 협력의 전략적 거점이며 현재 '일대일로' 건설에 깊이 통합되어 대외개방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며 변방 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이 밖에 산업 기반이 탄탄하고 실물경제를 기초로 하며 제조업을 중시하여 산업 기반 재구축과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대 산업집군'에 집중하고 '5대 신산업'을 육성하며 우세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약용식물과 광물자원의 다양성, 풍부한 청정에너지 매장량으로 개발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높다. 현재 자원 보호, 개발, 리용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 우세를 산업 및 발전 우세로 전환하고 있다. 동시에 '최고의 경영 환경은 없

으며 오직 더 나은 환경만 있을 뿐'이라는 리념 아래 기업인을 '가족'으로, 기업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투자자들에게 따뜻하면서도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북경광자동력무역유한회사 리사장 신성순은 "이번 투자무역상담회를 계기로 연길의 시장과 투자 환경에 대해 더 깊이 료해하게 되었다."며 향후 현지 기업들을 고찰하고 연변의 미식을 전국에 선전하는 방안을 더 깊이 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명화기자

[홍색정신 전승]

백산방대그룹 35년간 이어온 홍색정신 전승의 옹군길

▶ 관련 기사 8면

· 개요 ·

중화의 품속에서

방명일 작사  
리하수 작곡  
박경숙 노래  
한택수 편곡

작사: 방명일 작곡: 리하수 노래: 박경숙